

국회통과된 '고도 보존특별법'

경주·부여 등 옛도시 '통째' 관리 예산확보·법적 근거 보완 '시급'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지닌 옛 도시(古都)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고도 보존특별법'이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 즉, 점(點) 단위 문화재 정책에서 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는 면(面) 단위 정책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법 상에서는 사찰이나 석탑은 보호가 가능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들어선 고층건물이 사찰 경관을 가로막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 그동안 자기 집을 보수 하려다 법범자가 되기도 했던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 제정 작업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 남겨진 과제들

특별법은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존할 문화유산을 확실히 보존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예산 확보, 문화재 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총선을 앞둔 선심성 법안의 의혹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는 이 법이 시행되면 경주 지역에서만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4개 지역을 합할 경우 수 조원의 재정 지원이 예상돼 이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문제다.

이들 기획예산처는 막대한 예산 소용을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해 왔다. 특별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기금법을 따로 제정하거나 문화재 보호기금을 적극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고도 보존 특별법이란?

고도 보존 특별법은 경주·부여·공주·익산을 고도로 지정해 해당 도시를 '통째' 관리하는 법이다.

고도는 이 네 곳 외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고도 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지역 내에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해 문화재에 관한 행위 제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특별보존지구'는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 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 일체의 현상 변경이 금지되는 지역이고,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주로 특별보존지구 주변 지역으로 현상 변경을 제한해 고도의 역사 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지정지구 내에서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들여야 한다.

2001년 11월 국회의원 159명이 서명, 김일운 의원(한나라당·경주)이 대표 발의한 고도 보존특별법은 2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

경주 지역만 1조 6천억 필요 추산

기금법 제정 등 적극적 조치 불가피

유관 법령과의 '상충' 합리적 해결을

이들 기획예산처는 막대한 예산 소용을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해 왔다. 특별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기금법을 따로 제정하거나 문화재 보호기금을 적극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일운 의원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은 연차적으로 지원되며, 예산은 대부분 국고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 보존특별법이 상충되는 문제도 주목해야 할 문제다. 경주 등 고도로 지정된 네 곳의 유적지 대부분은 이미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보호법 상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현상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 보존특별법에서 이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단, 시행령 제정 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문화재청에 위임할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문제다. 권한이 위임되면 문화재청장이 두 번 똑같이 사인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사적과 윤순호 사무관은 "이번 특별법은 문화재 보존에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특별법 통과로 경주 지역 주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이사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4월부터 용산 이전 시작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진규)은 오는 10월 '2004 세계 박물관대회' 개최를 마지막으로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70년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005년 용산 새 박물관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2월 10일 발표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역점을 두는 업무는 단연, '박물관 이사'. 현재 용산 새 박물관 본관 건물은 95.4%의 공정율을 보여, 2월 말이면 본

관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일부 사무실과 소장품 이전이 시작된다. 이전 할 소장품은 수장고 9만 2천점, 전시실 5천 3백점, 야외 석조문화재 32점 등 10만 점이 넘고, 5톤 트럭으로 400여대 분량에 이르러 그야말로 '문화재 대이동'이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5월 불상을 이전할 때에는 이운식(移運式)도 봉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 기자

불교관련 박사논문 7편 발표

2003년 전기 박사 학위 수여자들이 발표한 불교학 관련 논문은 동국대 4편, 상명대 1편, 원광대 1편, 홍익대 1편 등 모

두 7편, 석사논문은 동국대 18편, 위덕대 6편, 서울대 2편, 원광대, 강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각 1편 등이 발표됐다.

논문 제목	이름	대학	학과
‘도신장(道身章)’의 회염 사상 연구	박서연	동국대	불교학과
원효의 보법(佛法)회염사상 연구	석길암	동국대	불교학과
한국 불교무용의 사상적 의미와 문화 예술적 가치 연구	김종형	동국대	불교학과
조선 후기 괴물 연구	이영숙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가여래 설법도상의 연원과 전개	김현정	상명대	사학과
사명지예(四明知禮)의 현대실상론 연구	박혜훈	원광대	불교학과
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도상 연구	이숙희	홍익대	미술사학과

1면에서 이어짐

이번에 보강처리가 결정된 석탑 3기는 감은사지 석탑의 해체 보수 이후 차례로 정비작업이 진행된다.

1996년 해체 보수한 후 8년 만에 다시 정비에 들어가는 감은사지 동탑은 그동안 '적십이 내려 앉아 탑 부재에 변형이 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2000년 실시했던 안전진단에서 표면 풍화와 생물 서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후, 2년여 지나서야 보수가 결정돼 석탑을 방치해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감은사지 동탑은 이번 안전진단에서 동·북측 1층 옥개석이 옥개받침석과 4.5cm 정도 사이가 벌어져 있고, 각 부재에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견돼 전반적으로 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불국사 다보탑은 조각이 정교한 만큼 석재의 피로도가 커 풍화가 심하며, 상륜부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대각선 균열을 보였다. 석가탑은 내시경 검사 결과 적십이 침하돼, 상·하층 기단 감석이 모서리 들림, 하층 지대석 교란 현상을 보여 사업단이 해체보수를 건의하기도 했다.

해체 보수 공사가 결정된 감은사지 석탑은 마름사지 석탑보수정비에 도입된 것과 같은 철골구조의 가설 덧집을



감은사지석탑

설치하고, 구멍이 난 부분은 동일한 석재를 깎아 넣거나 비슷한 재질로 메운다. 또 부재의 풍화가 심한 것을 고려해 우레탄 폼을 씌워 통째로 드러내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불국사의 두 탑은 사찰 내에 위치해 있고, 불국사의 관람객이 많은 만큼 불국사 측과 협의해 공사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탑 정비를 위해 설치하는 비계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보탑 공사가 끝난 후, 석가탑 정비에 들어가게 된다. 오유진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2>



허상과 믿음

세상은 이미지(image, 相)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사람이 접하는 상(相)은 그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한다. 과거에는 먹고 자고 농사지으면서 구체적인 대상 속에서 살아왔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더불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TV 화면 속의 상과 같은 또 다른 의미의 허상(虛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相) 전달인 경우도 많다.

최근 뇌 연구의 발달로 전기적 자극을 통해 환자가 보고 받아들이는 이 세상에 대한 느낌을 실험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환자는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고 믿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相)이란 실제 없이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나를 둘러싼 상(相)을 믿고 받아들여 그것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을까? 한편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진정한 불자(佛子)라면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여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여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진정한 불자(佛子)라면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여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믿음 중요해도 '맹목적' 이면 미신

허상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 기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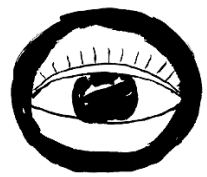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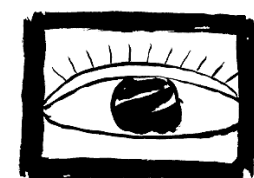
때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 앉은 우리판에 비취지는 빛을 보고 열광하고 낙담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한편으로 참으로 괴기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다. 만일 누가 실제와는 다른 거짓 화면(相)을 비취준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믿어 울고 웃고 할 것인가?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라는 것도 하나의 상(相)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 우리들 각자는 나름대로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이고 그 정보에 따라 울고 웃으며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 우리가 의미부여한 허상인 경우가 많다. 허상에 흥분하는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또 다른 허상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재생산하는 구조가

과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로서 때때로 한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상(相)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허망하게 보아야 한다. 부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닌 상(相)에 그것마저 허망한 것이니 어찌 부처와 조사를 죽이지 않을 손가.

굳이 말라라 한다면 믿을 것이 없음을 믿어야 하고,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하여 뱀처럼 지혜롭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어가면, 삼계유상(三界唯相)이요, 곧 삼계유심(三界唯心)이니 상과 마음이 다르지 않거나 스스로 허공 꽃을 지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허상(虛相)에 휘둘러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SHIM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3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 ① 초급반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기,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칭, 관음기도법, 신왕기도...
- ② 중급반 (3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경관공,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정인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 ③ 작법반 (6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바라, 대계작법, 오공양작법, 요점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 ④ 고급반 (6개월):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명량자 소수)

대구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범패 인식교육원 · 정토사

신경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승복 범복 인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 명, 면 : 면 100%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범복 모직 60,000~80,000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대구 중구 동명동 [동삼아파트 지하 공방] (지역판매점 모집)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방)

국산 최초의 속의 신비함 힘!!!

속가루는

차콜이라 불리는 속가루는 미국에서나 유럽에선 오래전부터 FDA의 공인을 받아 우수한 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고있습니다. 또한 차콜의 최대 장점은 음식에서 흡착해 독 작용, 피를 맑게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백초상, 송인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

- ▶원적외선 방출 ▶미네랄 방출
- ▶탈취효과 ▶여과 해독 작용 ▶공기 청정

※참숯원적외선 구이판은 절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 타지 않습니다. 절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방출(영) 및 도서출간)

- KBS (2004년 1월 30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숙에대만 방영)
- 윤동익 PD의 건강속이야기, 속이 사람을 살린다, 이정림 속가루 요법 등...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5 킴포오피스텔 709호
TEL. 0531753-5556 / 080-767-7700 FAX. 0531753-5569
http://www.riseupkorea.com